

가상자산 ETF 법제화 급물살… ‘직접 상장’도 제도화 가속

정치권·당국, ETF 법제화 박차
운용업계 “기관, ETF 투자 가능”
대형 운용사, 동시 진입 예고
시장 판도 변화 신호탄 쏘아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 기초자산으로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의 후속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하반기 재간접 방식의 현물 ETF 도입안을 준비 중이다. 업계는 이후 ‘직접 상장 ETF’의 제도화 시계 역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탁업자가 디지털자산을 수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법적 근거도



ChatGPT로 생성한 ‘가상자산을 담은 ETF’

마련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약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국내 자본시장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개

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투자자나 법인투자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 기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치권 전반에서도 제도화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 신탁

업자가 이를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중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상장 ETF를 편입하는 ‘재간접 방식’을 우선 허용하고, 수탁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시·상장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2단계 입법도 추진 중이다.

자산운용업계도 이에 발맞춰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최근 가상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대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 출시는 법제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디지털자

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 ETF의 안정성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상품 설계에 채권 등 안전자산을 일부 혼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IBIT)가 운용자산 700억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 기반 ETF(ETHA)도 약 4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제도권 정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ETF의 제도권 편입은 기관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국내 자산운용 시장의 다양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운용업계는 물론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개별사가 먼저 출시하기보다는 제도화 이후 주요 운용사들이 동시에 상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불닭 열풍’ 삼양식품, 시총 10조클럽 진입

해외 매출 80% 돌파, 글로벌 성장
밀양2공장 가동, 中 공장 2027년 생산
영업이익률 25%, 식품업계 새 기준

삼양식품이 27일 시가총액 10조원 고지에 깃발을 꽂았다. 이날 주가는 0.91% 오른 133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당 100만원이 넘는 종목을 ‘황제주’라 부르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양식품뿐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 시가총액은 지난 27일 종가 기준 10조490억원이다. 삼양식품 시총은 유가증권시장 54위로 두산, 현대글로비스, 삼성전기 등과 비슷하다.

증권가에서도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높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120만→170만원), DS투자증권(130만→160만원), IBK투자증권(108만→145만원), 키움증권(120만→140만원), 하

나증권(110만→135만원), 교보증권(102만→133만원), 유안타증권(110만→131만원), 한국투자증권(110만→130만원), 신한투자증권(110만→125만원) 등이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2020년 57%에서 작년 77%로 확대됐고 올해 1분기에 80%를 기록했다. 마진이 높은 해외 비중이 확대되며 수익성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올해 밀양2공장 가동, 2027년 첫 해외 공장인 중국 공장 가동으로 3차 성장기를 맞고 있다”면서 “해외 주요 유통채널 입점이 확대되고 미국에서 유럽, 남미 등으로 지역적 확장, 불닭 소스 수출 등 제품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의 장밋빛 전망과 주가 질주 뒤에는 실적 성장세가 있다는 분석이다. 삼양식품이 2012년 출시한 불닭볶

음면은 BTS, 유튜버 영국남자 등 유명 인사들이 즐기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며 한국은 물론 글로벌 히트 상품이 됐다. 삼양식품은 1분기에 연결 기준 분기 최대 영업이익(134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67%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영업이익률은 25%로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 제품이 현재 미국·중국·유럽 등 글로벌 전 지역에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본격 생산에 들어가는 밀양 제2공장도 연말 ‘풀 캐파’(생산능력 최대가동)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이익률(OPM) 25%를 달성하며 국내 식품 업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주주가치 흔들”… 코스닥 유상증자 14% 급증

운영자금·채무상환용 증자 잇따라
주가 급락세에 투자자 불만 폭발

개인투자자 이모 씨(41)는 5년 넘게 보유해 온 A사 주식 300여 주를 지난달 모두 처분했다. A사가 유상증자(유증)를 통해 차입금을 갚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선택이었다. 이 씨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도 속상한데, 증자 대금이 신규 투자가 아닌 차입금 상환에 투입된다는 점을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성토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유상증사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

는 ‘유상증자’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위해서가 아닌 부채 상환, 본업과 무관한 회사 인수 등을 위한 유증이 잇따르면서 주주들의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총 171개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150개) 대비 14% 증가한 수준이다. 이들 기업의 유상증자 규모는 총 1조3896억원에 달한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자

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나 제3자가 신주를 매수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목적이 주로 운영자금 확보나 채무 상환 등 경영난 해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보다는 유동성 위기가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주가 약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원관희 기자 wkh@

교보증권,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실시

WM지점 실습형 교육 포함
현장 대응·권익 보호에 초점

교보증권은 여의도 본사 19층 비전홀에서 ‘2025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임직원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방문판매 유의사항 ▲투자권유준칙 ▲고령자 보호 ▲민원 응대 ▲상품설명 프로세스 ▲CS

교육 및 롤플레이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WM지점 교육에는 외부 전문가 강연과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이 포함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KoAct ETF, 밸류업 상품 수익률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지난해 11월 상장 후 수익률 27.3%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 ETF’가 밸류업 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29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에 따르면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 ETF’는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 수익률 27.3%를 집계했다. 같은 날 상장한 밸류업 ETF 12종 중 1위다.

KoAct코리아밸류업액티브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리아밸류업지수를 비교지수로 삼아 밸류업 지수 내 우수기업, 밸류업 지수 편입 예상기업, 주주행동주의 관련 기업 등 48개 종목을 엄선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현재 섹터별로는 IT 31.9%, 산업재 20.9%, 금융 18.9%, 경기소비재 13.5%, 헬스케어 5.5%로 구성된다.

코리아밸류업지수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높으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은 종목의 교집합을 선정했기 때문에 자본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다수 포함돼 있다.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에 추가적으로 수익성과 주주환원을 고려해 산출된다.

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1팀장은 “밸류업 지수는 이익과 주주환원 상승에 기반하여 가치 상승이 전망되는 기업들의 집합으로 정부 정책 흐름과 일치한다”며 “국내 시장 상승에 동참하기 위한 확실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